95 Copy 2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기술 인재를 !

3 APR 11 1961

화살

1960년 8월 하반호 (132)

허 능택 그림

조선에서 본 쏘련

조 명식 그림

옷감 폭포

북 형

남 (트렁크를 들고 급히 들어 오며) 여보! 아 여보 자 이 사람이 어데 갔어! 여보!

녀 예! (급히 나오며) 난 또 누구라고, 인제 오세요? (트렁크를 받아 들다가) 아이구 무거워 뭐 들었기에 이리 무거워요.

남 입자 줄려고 옷감 폭포의 선물을 가져왔소.

녀 옷감 폭포라니요! 흥남엘 가신다더니요.

남 흥남엔 폭포가 없는 줄 아오? 세상에 내놓고 떠들어야 할 그런 폭포가 생겼단 말이요.

녀 아니 그럼 우리 묘향산의 산주 폭포보다 큰 폭포나요!

남 이런 우물 안의 개구리라구야 천하에 산주 폭포 밖에 모루? 그런 폭포루 말하자면야 얼마든지 있지. 천해 폭포, 이명수 폭포, 량단 폭포, 삼방 폭포, 심이 폭포, 구룡 폭포, 박연 폭포, 비봉포…무룡 폭포… 이건 말이요. 그런 폭포가 아니라 옷감 폭포란 말이요 옷감 폭포…

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아니 천하에 옷감 폭포가 어디 있어요.

남 이 두 눈으로(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킨다) 보고 왔는 데도 없어?

녀 당신두 참! 말을 좀 순서를 밟아 하시구려. 머리도 꼬리도 없이 대뜸 옷감 폭포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웃으며)

남 그럼 그렇지! 헌데 돌에서 솜을 뽑아 옷감을 짠다는 말은 들었지?

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거야 앞으로 한 십 년이나 이십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뭐.

남 하! 이런 답답이라구야.

녀 그럼 돌에서 정말 옷감이 나온단 말이애요?

남 내가 말하는 옷감 폭포란 바로 돌에서 옷감이 나오는데한두 사람 입을 것이 아니라 1년에도 수천 수만 사람이 입을 고급 양복지, 와이샤쯔, 부인복, 아동복, 브라우스, 완피스, 노타이, 적삼감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됐단 말이요.

녀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어요.

남 모르겠으면 정신을 좀 차려서 들어보오. (트렁크를 열고 돌을 하나 꺼내 보이며) 자 옛소 이게 선물이요.

녀 (실망한 듯) 아이 난 또 무슨 금뎅이라도 들어 있다고요! 참 그게 무슨 선물이애요. 그런건 우리집 뒤'동산에도 돌이 쌓였어요.

남 하! 그러니 더욱 좋다지 않소. 우리 나라에 흔한 돌로 가지각색 일용품을 만들 수 있으니. 말하자면 금 은 보화 우에 앉은 셈이란 말요.

녀 (점점 호기심을 가지고 바싹 다가 서며) 아니 이 돌에서 말이애요? 이 돌에서…

남 그렇소. 지금 본궁에 일떠서고 있는 비날론 공장과 염화 비닐 공장이 바로 이런 돌에서 솜을 뽑고 실을 뽑아서 천을 짠단 말이요. (스스로 감탄하여) 야 그 공장 본때 있게 크기도 하더라. 질안 공장의 건설 조립액의 약 4 배나 된다니까.

녀 대체 그 돌에서 나온 천이란 어떤 천이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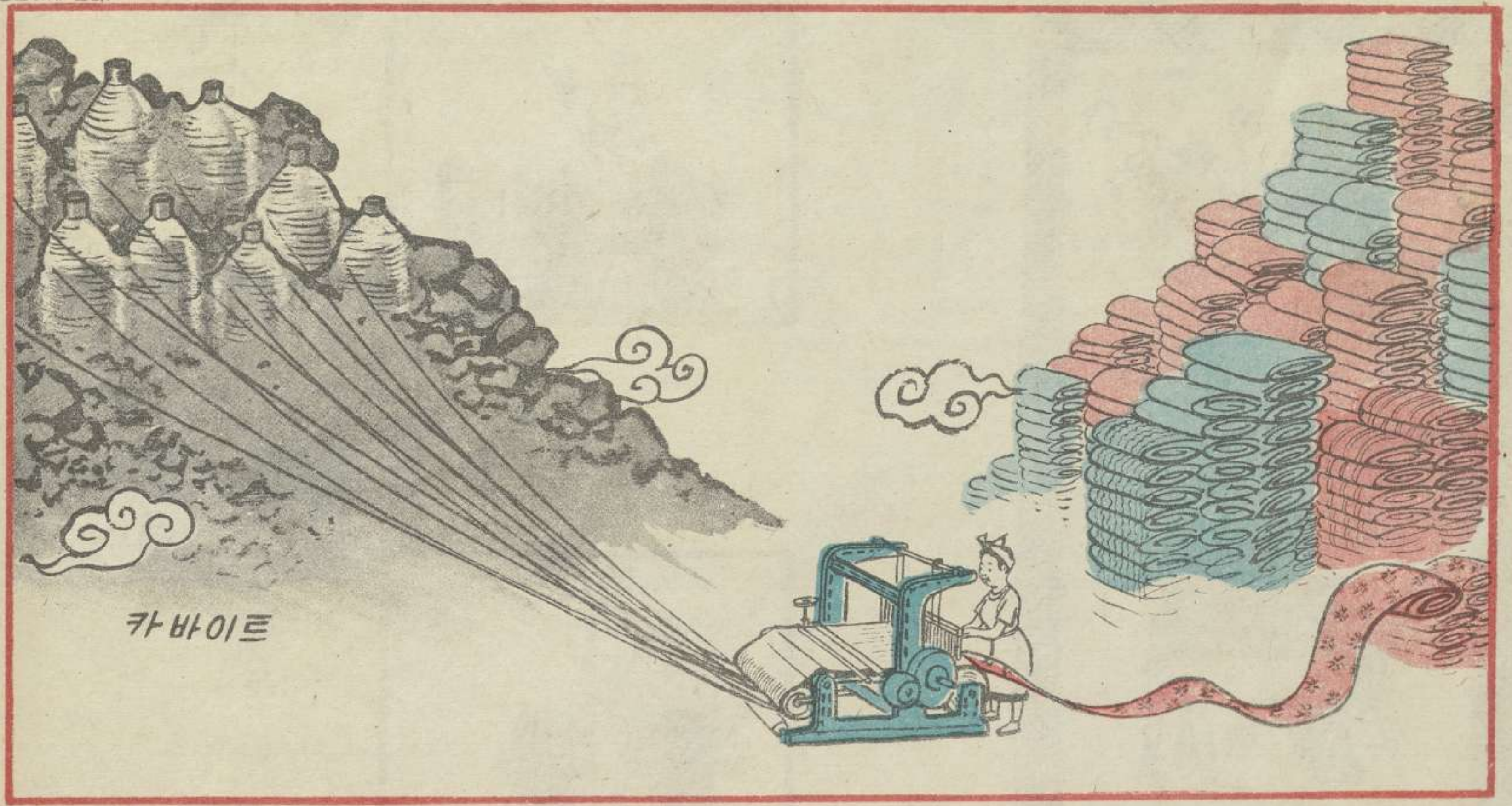
남 솜, 명주, 삼, 털 같은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리기는 솜에 비해 약 3.5 배나 더 질긴데 가볍기는 솜이나 양털보다 더 가볍고 값은 솜에 비해 3 분지 1밖에 안되고, 웅 그리고 산이나 알카리에도 이 천은 영 삭지를 않는다나.

녀 그럼 작업복도 좋겠어요, 예?

남 작업복 뿐이겠소. 물에도 썩지 않으니 고기 그물이나 로쁘 같은 데도 으뜸 가는 실이지 그리고 비날론 1만 톤이면 솜 3만 5천 톤이 되는 셈인데 솜 3만 5천 톤을 낼려면 적어도 근 4만 정보의 땅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 밭에 곡식을 심으면 정당 4 톤씩 치고도 16만 톤이 날거란 말이요, 그러니 땅은 알곡 생산에 돌리니 좋지, 질기고 아름답고 가볍고 값싼 옷감이 생기니 좋지.

우리 나라에서는 카바이트를 주 원료로 해서 솜에 비하면 3.5 배나 질기고 값은 3분의 1밖에 안되는 합성 섬유인 비날론과 비옷을 만들거나 그의 쓸모가 다종 다양한 염화 비닐을 다량 생 생산하게 된다.

돌에서 옷감이 나온다



원 광수 그림

녀 여보 우선 그 천이 나오면 당신 양복부터 한 벌 해야겠어요.

남 아나 당신 완피스부터 하나 하자구. 알락달락한 것으루.

녀 아이 이제 나이 서른이 넘은게 어떻게 알락달락한 걸 입겠어요.

남 뭐라나 2, 8 청춘 때 못 입은 봉창 하게나, 자색, 남색, 황색, 청색, 록색 마음 대로 골라서…

녀 아이들 옷감도 좋겠어요.

남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지, 여보 정말 좋은 세월이 왔소, 무지개 아롱지고 꽃무늬 현란한 합성 섬유 제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우리 생활을 치장해 줄 날이 백년 후가 아니라 명년으로 박두했단 말이요.

녀 정말 그래요, 청진 방적과 신의주 방직에서 나오는 천만해도 굉장할 터인데

남 일제 시대 인구 1인당 직물이 14 센치메터 밖에 안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요. 2~3 년 내 3억 메터를 짜내면 인구 1 인당 30 메터나 되니 1 년에 양복을 네댓벌씩 해 입을 수 있게 됐단 말이요.

녀 정말 천리마의 속도애요.

남 이게 다 당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이요. 중공업이 바로 이런 옷감 폭포를 낳았소그려.

녀 정말 희한한 일이애요. 돌에서까지 천을 뽑다니 (다시 돌을 찬찬히 본다).

우리 나라 산과 들에 풍부한 도토리와 들쭉을 비롯한 각종 야생 과실과 산채류 등 일체 야생 원료들을 적극 채취하여 효과 있게 리용한다면 인민들에게 다종 다양한 식료 가공품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부수입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황금산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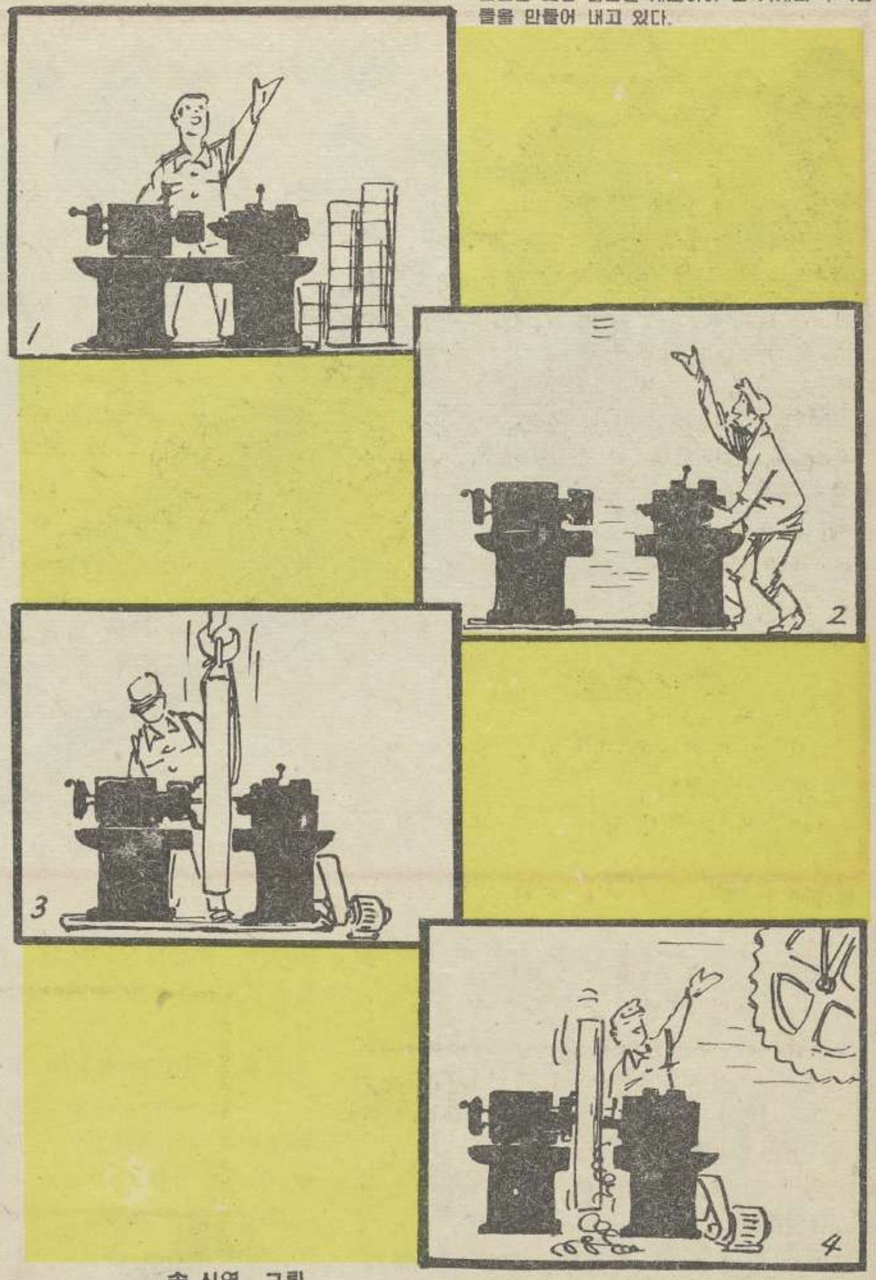
셋이 해도 힘들던 일을……

혼자서도 쉽게 한다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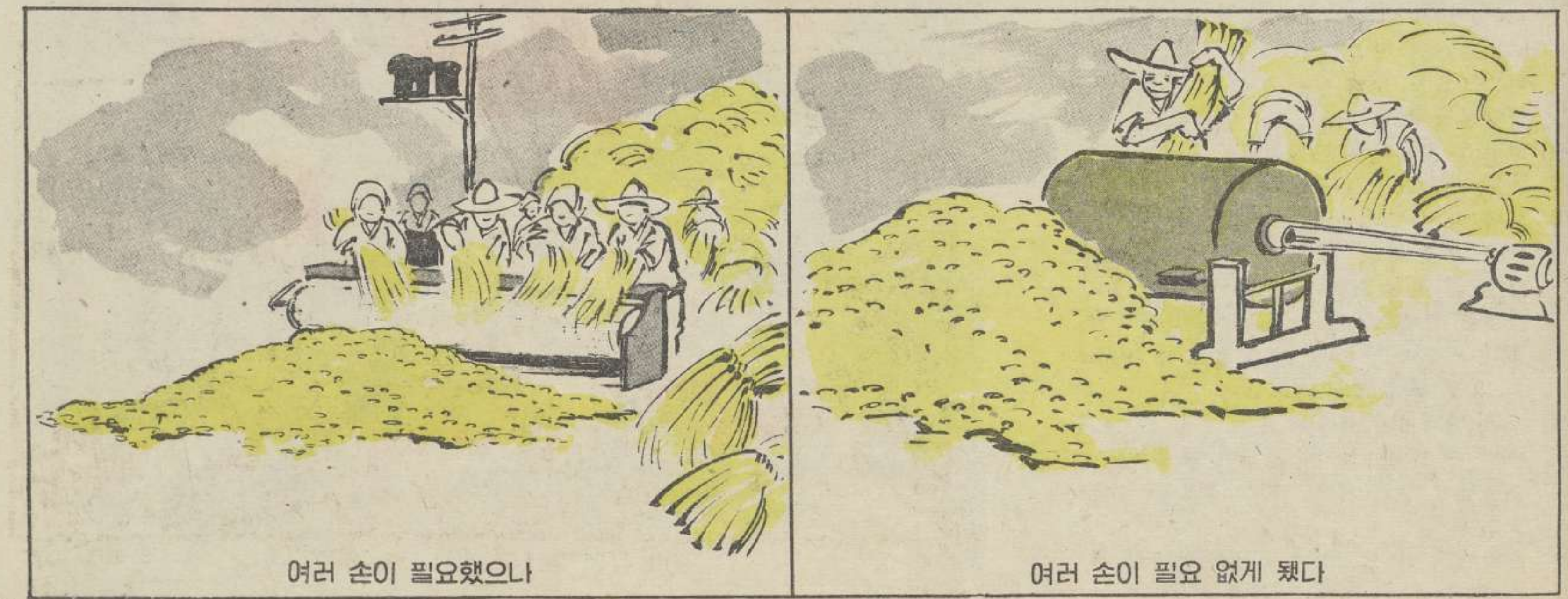
적어도 큰 일을 한다

사리원 종합 기계 공장에서는 적은 부속품만 만들던 소형 선반을 개조하여 큰 기계의 부속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송 시엽 그림

새 창안



여러 손이 필요했으나

여러 손이 필요 없게 됐다

허 능택 그림

평북도 염주군 현곡리에서는 《현곡식 종합 탈곡기》를 창안하여 종전보다 탈곡 작업에서 4~5배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작고도 큰 경험

중소 농기계 리용 경험을 들으려고 장풍 군내 관리 위원장들이 모두 모여 온 것을 보고 구화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난처한 얼굴이 되였다.

《그럼 이야긴 하겠는데 경험이 너무 몇마디 되지 않아서 먼데서 오신 분들은 실망하실가봐 미리 량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저 적극 리용하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리구 중소 농기계를 쓰니 비할 바 없이 좋다는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수한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부에서 우리 조합에만 특별히 좋은 기계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예 이야기를 끝낸 듯이 모여온 사람들을 바라 보았다.

《그래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겸손하게 그러지 말고 어서 이야기를 하시우》

《자기 조합만 앞서려고 이야기 안하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졸랐다.

구화리 관리 위원장은 뒤통수를 긁었다.

《아닙니다. 더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금년에 들어 와서 국가에서는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에도 뜨락또르로 많은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 농기계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배정되는 농기계들은 모두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에서 더러 안가져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구 소농기구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농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제때에 수리해서 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야장'간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파철들을 모두 비상 소집해 놨지요.

가스 발동기란 놈이 참 좋은 놈입니다. 아무데서도 동력 기계를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탄으로 돌리는 가스 발동기로 현장에서 탈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탄이 없어지면 겨로 돌릴 작정입니다.

그리구 모두가 농촌 기계화에 떨쳐 나서고 있는 이 때에 무엇인들 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의 방조를 받았습니다. 탈곡기를 돌리는데 수차를 리용했지요. 그래서 발동기가 없이도 일을 쉽게 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차를 대대적으로 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력 제초기와 만능 분쇄기, 옥수수 탈곡기, 북데기 탈곡기, 씰로스 절단기 등도 물론 적극 리용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계들의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탈곡과 북데기 탈곡, 그리고 탈곡한 곡식을 선풍기로 정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게끔 기계들을 련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모자라 아직 족답기로 일하는 작업반에서는 〈거 일을 신사적으로 하면서도 빨리 하는데!〉하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사실 족답으로라면 10일도 더 걸릴 것을 2일 동안에 해 치우고도 아주 헐하게 일했으니까요. 물론 농기계들이 고장도 더러 나긴 하지만 우리 야장'간 동무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제까닥 고쳐 놓지요. 그래서 수리해 놓은 농기계들을 인차 갖다 리용하지 않으면 화까지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차를 리용할 수 있는데는 수차로, 수차도 전동기도 리용할 수 없는데는 가스 발동기를 리용해서 전반적으로 기계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우수한 경험이라군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당이 시키는 대로 중소 농기계를 적극 리용하려고 노력한 것 뿐입니다. 먼데서 오신 분들은 실망하시겠지만 경험이 없는 걸 어떻거겠습니까. 량해해 주십시요》

그러자 다른 조합에서 온 관리 위원장이 말했다.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농기계를 적극 리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경험, 그것 이상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 운봉

토끼 동산

—이 여름 철에 눈이 오다니…

—아! 눈이 아니라 토끼 동산이로군…

허 능택 그림

《리용》된 농기계

황해 북도 사리원시 광성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농기계들에 대한 보관 관리를 잘하지 않고 있다.

빗대고 말한 《에누리》

《관리 위원장 동무 계시요? 좀 바꿔 주시요》

회양군 인민 위원회 리 부위원장은 마전리에 전화를 걸었다.

부기장이 관리 위원장에게 군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자 마당에서 채소 파종을 위한 작업 조직을 하던 관리 위원장은

《군에선 토요 학습 시간일텐데…》 하면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 가서 수화기를 든다.

《전화 바꿨습니다》

《관리 위원장 동무요. 군 인민 위원회 리 부위원장인데… 채소를 비롯한 하파가 어떻게 되였소? 지난번 모내기 때처럼 또 에누리를 하잔 말이지… 히히히…》

이때 학습회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지도 나온 도 인민 위원회 최 부위원장이 리 부위원장실에 나타났다.

《리 부위원장 동무는 전화로 학습을 합니까?》

《…하파가 걱정이 되여서요…》

《글쎄 말이요. 하파를 옳게 조직 지도하자면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모르오?… 근데 에누리란 말은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리 부위원장은 학습 규률을 위반한 데다가 에누리란 두서 없는 말을 한 게 부끄러워 고만 얼굴이 붉어졌다.

《좋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게 사업을 하자면 학습을 제대로 해서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야 하잖소. 그런데 동무는 당면한 경제 파업을 조직 지도한다는 구실하에 로요 간부 학습에 계속 6 차례나 빠졌으니 한심하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니 위원장 부위원장이 리에 지도를 내려 가서는 농민들의 〈의사 존중〉이라고 해서 랭상모보다 수모를 더 많이 심고, 옥수수 파종보다 조 파종 면적을 확장하는데 장단을 맞출 수 밖에 없단 말이요…》

최 부위원장은 쓴 맛을 다시며 담배를 피워 물고 말을 잇는다.

《그래 리에 내려 보낸 군 지도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소?》

《일이 바빠서…》

《보오, 자체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하부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군의 경제 사업이 잘 되여 나갈 리가 있소?》

《그렇지 않아도 3.4 분기부터는 실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듣건대 신명리에 나가 있는 군 지도원은 그 조합 사업을 조직 지도 총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작업반에 나가서 수격 수격 일만 하는 것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 한 듯이 생각하고 있다니 말이요…》

《알았습니다…》

이 때 전화의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리 부위원장은 수화기를 들고 《예, 예, 예? 예? 얘기가 중단됐지요. 말씀하시요. 채소 파종할 면적이 없다구? 무슨? 에누리? 에누리라니. 그 말은 내가 동무네를 빗대고 한 말이지 진짜가 아니라니까!…》

리 부위원장은 얼굴이 새빨갛게 되더니 수화기를 놓고 고만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 호주

누굴 위해 봉사하는가?

함북 김책시 도시 경영 사업소
정 광윤 그림

누구의 잘못인가?

혜산시 경공업 건설 트레스트　　박 천억

부레끼를 밟자 혜산 시내를 달리던 뻐스(6—1—125)는 급작스레 멈춰 섰다.

그러자 차내에서는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서로 부딪치고 넘어지고 꺼꾸러졌다. 어쨌든 이 소란이 갑자기 일어나고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끝났지만 차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판 초면인 앞 손님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만들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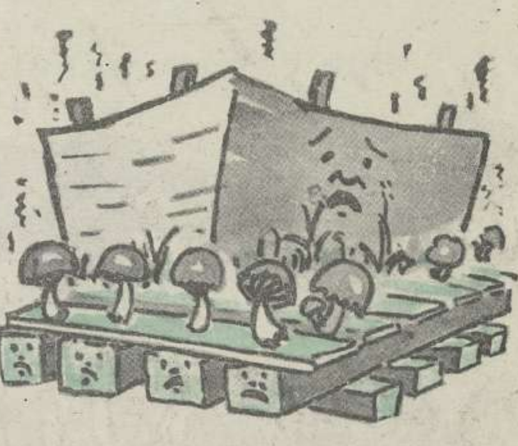
《아니예요. 제가…참 안됐어요》

이런 대화가 륙순 로인과 애숭이 학생 사이에, 영예 군인과 젊은이 사이에, 처녀와 젊은 남자 사이에 이를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한 사파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장본인인 운전수만은 아무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청년이 빈정댔다.

《저 운전수는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뉴—톤의 제 1 법칙에 즉 차가 멎어도 차안에 있는 물체는 그냥 앞으로 나가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황해 제철소 용광로 사업소에서는 브룩크 회들용 목재를 300 여 립방메터나 썩이고 있다.

썩고 있는 목재



황철 제선 직장 윤 복 그림

황해 북도 사리원시 만금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량곡 보관을 되는 대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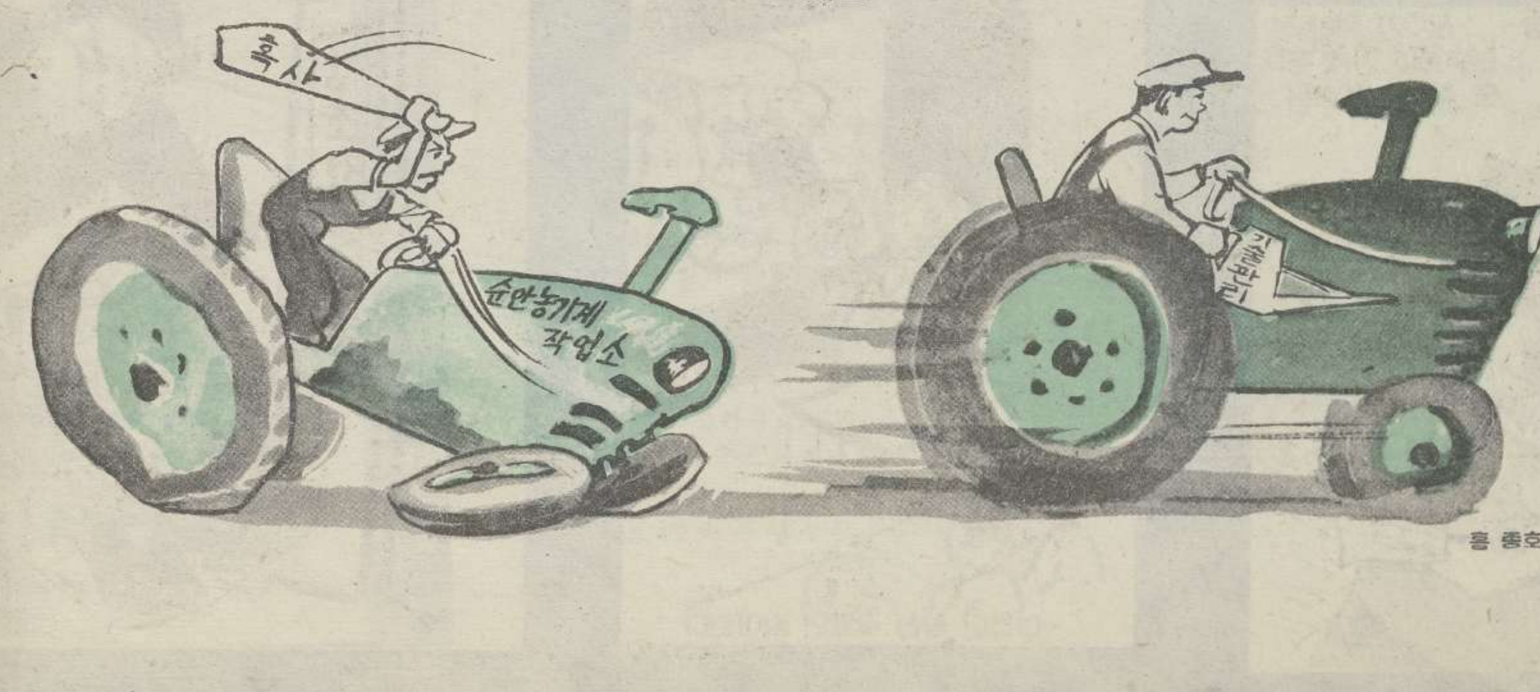
《무허가 반출》

—저 밀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그건 원래 사료용입니다

송 시엽 그림

순안 농기계 작업소 지도 일'군들은 농기계의 기술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로부터 그의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두 태도



홍 종호 그림

북반부

등 교

백 인균 그림

남반부

로천 교육

백 인균 그림

무사 통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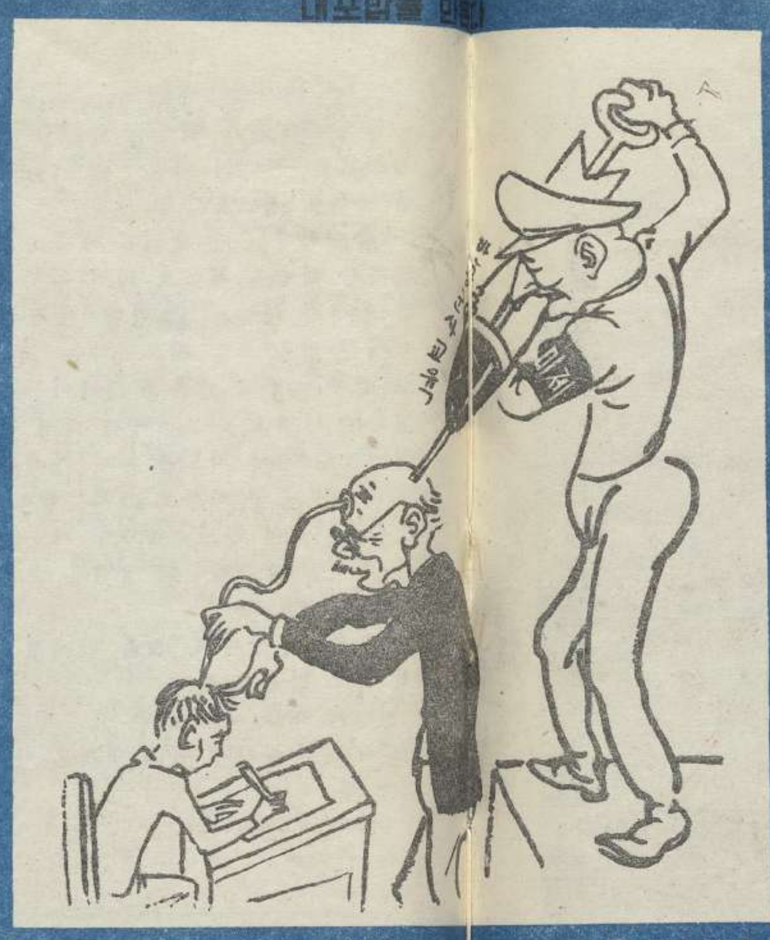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남조선의 《도의 교육》

—이것이 립신 공명의 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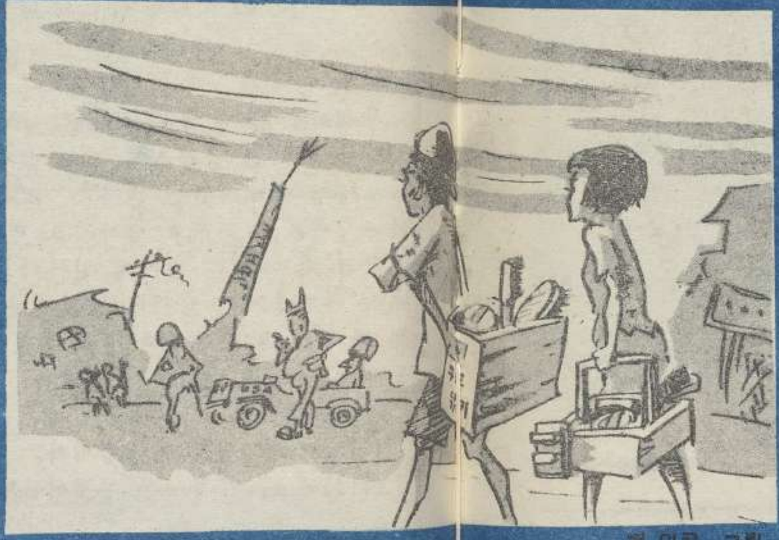
박 송히 그림

대포밥을 만든다



박 송히 그림

새벽 밥



백 인균 그림

쓸어 버려야 한다

박 송히 그림

경감으로 기여 오른 김순경

정 남수

살인 경찰로 용약 명성을 떨친 충청 남도 대전 경찰서 김 순경은 서울시 충무로 거리의 짚숙한 당골집 문을 열었다가 그만 입을 딱 벌렸다.

4월 사변의 복새통에 돌찜을 맞고 종적을 감췄던 최 순경이 경감 복장을 하고 기생년과 마주 앉아 코'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어이! 최 순경 자네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응 분명 최 순경은 틀림 없겠지?》

어찌나 퍼 넣었는지 눈통에 피'발까지 선 최 경관은 김 순경의 아래 우를 쭉 훑어 보더니 《이 자식이 눈깔이 멀었나, 그래 내가 순경으로 뵈나 엉, 이제 경감이란 말이다 경감!》

김 순경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야, 자, 하면 놈이 불시에 위신을 차리며 친구를 헌신짝처럼 대하는 데는 분통이 치밀었으나 후일을 생각하여 《히히, 경감님 이거 영 몰라 보게 됐습니다》하고 턱 밑으로 바싹 기여 들었다.

원래 리'속이라면 간에 가 붙고 염통에 가 붙을 줄 아는 김 순경은 연방 술을 따라 주더니 이윽고 최 경감에게 뭉치돈을 슬쩍 안겼다.

그제야 최 경감은 아는채를 하며 그 후의 대선 형편이며 뿔뿔이 헤여진 동료들의 종적을 물었다.

《말 마시우, 연방 들고 일어 나는데 경감님이나 나처럼 리 박사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이야 어데 배겨 있을 수 있어야지요.후……그래 이처럼 건달뱅이 꼴을 해가지고 서울 거리에 괴신한 게 아닙니까》

김 순경은 눈물까지 흘렸다.

《경감님 이거 단간방 사일두고 이야기 하겠수, 그 춰서는 방법이나 좀 대 주시우》 김 순경은 엉덩이까지 살짝 들면서 다가 붙었다.

《김 순경 그래 가져온 밑천이 좀 있나》

《자 이런 그런 념려는 마시우, 뒤처리는 제게 맡기시우》

《그럼 내 글자를 써 줄게 래일밤 돈량감이나 꾸려가지구 강 서룡 치안 국장의 둘째 첩을 찾게, 그리고 겁쟁이처럼 건달뱅이 차림을 하지 말고 순경복을 차리고 눈치 있게 가란 말이야》

《히히…… 뭘 묻지 않을가요?》

《묻긴 김 순경이 4월 사변에 총알을 몇방이나 없앴는가?》

《꼭 152발이지요》

《허 이자식이 나보다 두발이나 더 쐈구만 그러면 돼》

이튿날 저녁 김 순경은 서울 장안에서 골동품을 사 들고 곧바로 그곳을 찾았다.

그런데 뒤뜰악에 들어서니 첩년의 간들어진 웃음 소리와 함께 혀 꼬부라진 소리가 뒤섞여 나오는폼이 한상 벌려 놓은 것이 분명했다.

문틈으로 엿보니 미국 경찰 고문관이 계집년의 아양을 받아 넘기면서 술상 옆에 옹크리고 앉은 치안 국장에게 웬 훈시를 하고 있다.

《강 국장! 그렇기 때문에 래일 다시 각도 경찰 국장들을 서울에 불러야 하는거요. 그자들에게 재삼 경찰 수습 원칙을 똑똑히 알려 주어야 하오》

《그렇지요 그놈들이 한국 경찰의 기둥이니까요》 강 국장은 잔뜩 자라목을 하고 상전의 말끝이 떨어질 때마다 코'등이 술상에 닿게 연방 굽실거렸다.

《우리 미국 경찰 전문가 그루빠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한국 경찰 수습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로 리 승만 경찰의 대가리는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둘째로 경찰의 임금을 배로 올려 준다고 선언함으로써 흩어진 놈들을 시급히 긁어 모은다.

세째로 가장·중요한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특히 4월 사변에 총알을 얼마나 없앴는가.

이것이 한국 경찰의 충실성의 척도인 거요, 이런놈들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한급씩 높여 빨리 바꿔 채우는 거란 말이요》

문틈으로 엿듣던 김 순경은 신통히도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애 무릎팍까지 탁 치며 헛 기침을 했다.

《에헴 마님 계십니까?》

《누구야?》

《접니다 김 순경입니다》

김 순경은 쪼루루 달려 나온 첩년에게 보따리를 안겨 주고 《마님 래일 국장님을 찾겠습니다》했다.

《그래라》

《저 마님 그리구 그속에 제 이름과 경력이 있는뎁죠》

《요까짓 것을 들고 다니면서 뭘 이래…》

《마님 두고 봅시다. 헤 헤》

그때로부터 사흘 후 서울 거리에서는 살인 참모부인 치안국의 신분에다 경감복을 받쳐 입은 김 경감이 쭉지를 흔들며 활보했다.

장 면이 이놈 네 죄를 아느냐, 냉큼 이 거울 앞에 나서라!

그래 어려서부터 미국 스프 마시면서 미국 하나님 모시고 일본 밥찌꺼기 먹으면서 《황국 신민화》를 짖어댄 원래가 개로 된 놈이라.

나라의 자주 독립 한사코 반대하고 미국 상전에게 모조리 팔아 넘기려 가진 발악 다하는 매국 역도라.

리 승만 괴뢰의 《국무 총리》 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피로 물들인 인민 학살의 원흉이라.

리 승만이 못다 불고 간 반동 나발 받아 들고 제 세상 만난 듯이 짖어 대면서 평화 통일 념원가로 막는 인민들에 대한 흉악한 원쑤라.

아이크가 왔다고 반갑고 황공해서 가진 아양 다 떨며 《밀봉 각서》 올리며 충성을 맹세한 미제 승냥이의 충실한 졸도라.

인민의 원성은 하늘에 가득한데 몽둥이와 협잡으로 선거를 날조하니 네놈을 그냥 두고서야 어찌 백성들이 기를 펴랴!

엑기 이 리 승만이와 짝질데 없는 매국 역적 장 면이 이놈 죽어 봐라!
—아유 사람 살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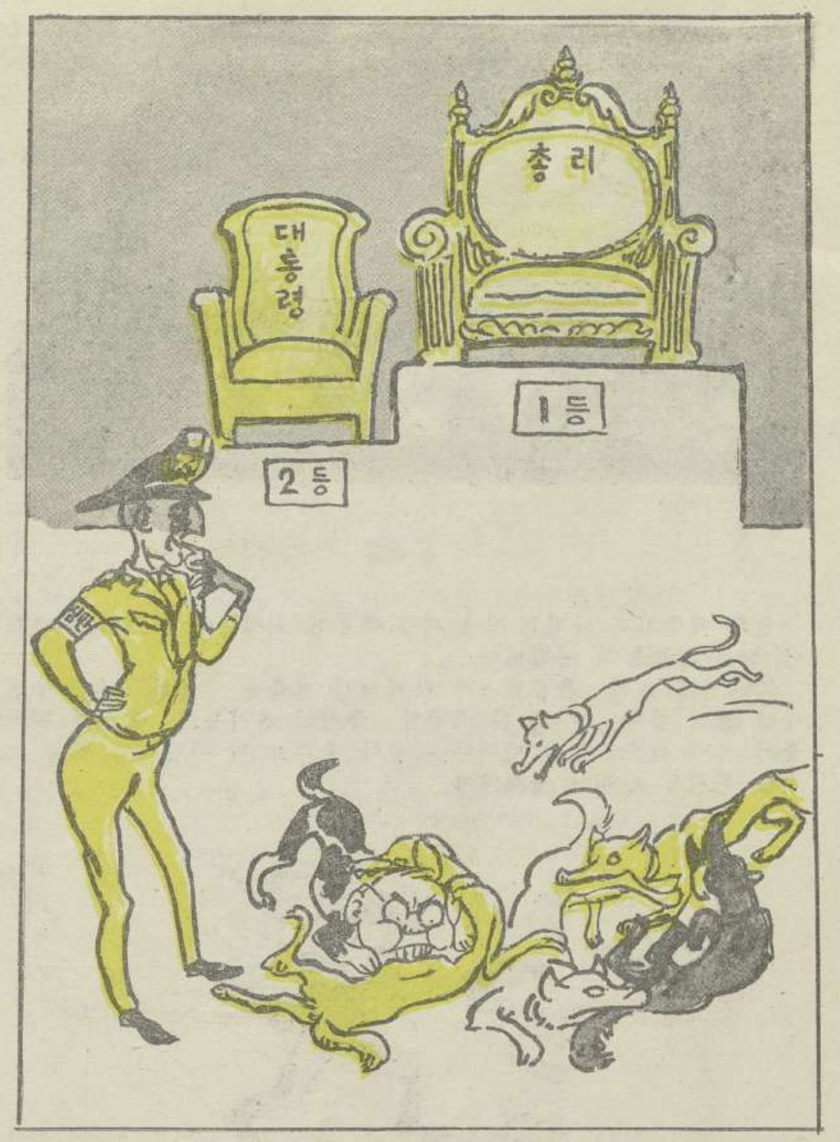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숲 속에 쌓였다

백 인균 그림

비행기에서—헤헤 이만하면 인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겠지!

쟁탈전



박 승히 그림

남조선 <민주당> 지배층들은 괴뢰 정권내에서 지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매일과 같이 개싸움질만하고 있다

특급 강도

정 남수

저녁 8시! 서울시 명동 거리의 자그만한 점포에 트렁크를 든 웬 사나이 하나가 들어섰다.

《령감 이걸 사오》

낯 모를 사나이는 트렁크를 열더니 고급 양복이며 내의 등속을 쭉 펼쳐 놓는다.

《얼마요?》

《값은 눅거리로 할테니 념려마오》

령감은 금사를 때려 보니 마음이 끌렸으나 돈도 적은데다 어쩐지 물품의 출처가 미타해서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런데 후'일은 념려 없겠소? 난 원 요즘 이런 뜨내기 물건은 통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 이런,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이 주소를 적어 두구려》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시민증》을 쑥 내민다.

《모든 것이 가짜 판국인데 이런거야 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령감이 떨긴 몹시 떠네, 그럼 이것까지 보아야겠소》

사나이는 다른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증명서》를 내놓는데 거기에는 《서울 시청 세무원》이라는 신분이 뚜렷이 적혀 있고 시뻘건 도장까지 눌러 있다.

그제야 령감은 다소 안심되여 며칠 동안 꾸려 놓은 돈지갑을 톡 털어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샀다.

현금을 받아든 사나이는 번개 같이 점포문을 나서더니 길목에 지켜선 웬 《순경》에게 《휘—》 하고 휘파람을 분다.

그러자 《순경》은 곤봉을 휘두르며 방금 사나이가 나온 점포 문을 두드린다.

《문 열라!》

《뭐요?》

《빨리 문 열란 말이다!》

령감은 방금 산 물건을 매대에 놓은채 문을 열었다.

《령감 도적놈을 어데다 숨겼어?》

《도적놈이라니?》

《이 놈의 두상이 능청스레, 임마 이 옷마을 순사 부장 댁을 털어간 도적놈이 방금 이 점포에 들어 오는 걸 보고 뒤쫓았단 말이다.》

《원 벼락 맞을 소릴 마시오》

《뭐 벼락 맞을 소리》

한참 고아 때리던 순경은 그제야 봤다는 듯이 《옳지 이렇게 매대에 빼젓이 내놓고도 뭐 벼락 맞을 소리 한다》

《여보시오, 그건 돈 주고 산거요. 여게 확인증까지 있소》

《순경》은 양복과 내의 등속을 걷어 안고 《확인서》를 보더니 《이따위 가짜 문건을 가지고》 하면서 쫙 찢어 버리고는 꽁지를 뺀다.

늙은 령감은 《여보 순경, 순경》하고 뒤쫓았으나 행처가 없다.

령감은 골목길에 풀썩 주저 앉더니 땅을 치며 통곡한다. 《아이고 이 강도놈의 세상, 내 점포, 아니 이제 우리 여덟 식구의 생명은 끝장이로구나!》

× ×

저녁 9시! 서울시 중부 경찰서를 나선 오 순경과 최 순경은 한참 골목길을 싸다니더니 정체 모를 두 사나이의 덜미를 잡았다.

《임마 가자!》

《여보, 어델 간단 말이오》

《이 자식들이 점포를 세개나 들추고도 모르는척해, 네놈들은 경찰 행세까지 한 알짜 도적놈이기 때문에 종신 콩밥이란 말이다. 종신 콩밥!》

《헤헤, 순경님 이거 뭘 이러시우》

끌려 가던 도적놈은 뭉치돈을 두 순경의 주머니에 쑥 넣는다.

《임마 그런 뢰물에 넘어 갈 줄 아니》

《순경님 그게 오늘 저녁 총 수입입니다. 후'날 한 번 톡톡히 봅시다 그려》

《히히, 이놈들, 그럼 좋다. 오늘 저녁은 우리 바빠서 특별히 용서한다만 다시 이래선 없다》

《체, 순경님두 번연히 알면서 뭘 큰 소리우》, 두 강도단의 무리들은 의미 심중하게 웃으며 헤여진다.

× ×

저녁 10시! 서울 주둔 미군 헌병대 헌병 토마스와 헨리는 출발에 앞서 다시 한 번 중부 경찰서 수직원이 보낸 비밀 통보를 읽어 본다.

《오늘 저녁 중부 경찰서 순경 두 사람은 작업 쓰리를 뒤따라 밤 9시 명동 거리 5호 방향으로 나감》

그때로부터 얼마후 명동 거리의 깊숙한 당골집 뜰악에서 토마스와 파이프는 《한국 순경》들의 면상에 단도를 빼들었다.

《순경, 오늘 저녁 것을 몽땅 내놓으시오》

두 순경은 벌벌 떨며 뭉치돈을 내민다.

《까뗌, 이것 뿐인가?》 토마스는 단도를 들고 헨리는 두 순경의 혁낭까지 모조리 털어낸 다음에야 그들의 엉덩이를 발'길로 차버렸다.

쫓겨가는 두 순경은 멀리 헌병이 보이지 않는데 가서야 혀를 차며 뇌까렸다.

《호참, 뛰는 놈 우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미국놈은 우리에 비하면 아주 특급 강도일세 그려…》

× ×

다음 날 서울 국제 송금 취급부서에는 뉴욕으로 가는 다음과 같은 송금 전보문이 접수되였다.

《나의 사랑 프라스까! 당신이 부탁하던 베빠트 구매 대금을 보내오》

(토마스)

신 불출 만담중에서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 생길 때부터 도적놈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도적놈의 나랍니다.

1500년대 초에 콜롬브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수천 수만 명의 영국 해적들과 서반아 출신의 해적들이 물밀듯 밀려들어 가서 원주민들인 인디안을 깔아 뭉개고 이 아메리카 땅을 도적놈 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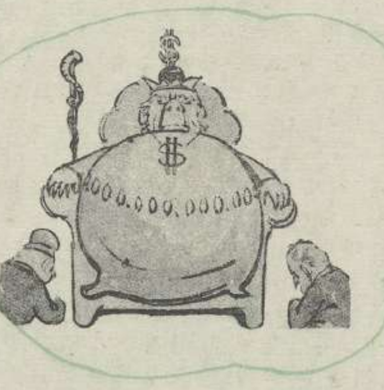
미국놈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니, 아부라함의 자손이니 하고 떠들어 대지만 실상 족보를 따지고 보면 문서 없는 도적놈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양키》라고 부르는데 《양키》란 말은 원래 《양키》 즉 서양 도깨비란 말입니다.

이 도적놈들이 날리고 있는 소위 국기라는 걸 보면 48 개의 하얀 점을 찍어 놓고 그 아래 붉은 줄을 쭉쭉 내리 쳤는데 이 하얀 점은 원통하게 죽은 인디안의 해골들이고 붉은 줄은 폭포수처럼 쏟아진 원한의 피들입니다.

이 력사적인 죄악의 증거 문건을 국기라고 날리는 이 날강도 놈들의 소굴을 쩍 쪼개 놓고 보면 대통령이란건 몽둥이를 들고 앞장에 나선놈이고 자본가란 건 돈주머니를 들고 뒤에 가 앉아 있는 놈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지만 이 아이젠하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놈이 바로 월가의 독점 자본가들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모르간이나 듀—퐁 같은 자본가들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록펠러는 미국 산업의 동맥을 틀어 잡고 있는 대자본갑니다. 이 록펠러의 명함을 보면 모두가 왕'자가 들어간 직업 뿐입니다.

첫째, 미국 제 1의 딸라 왕이요. 스탄다—드 오일을 관리하는 석유 왕이요. 내슈널 무기 공장을 경영하는 대포 왕이요. 뉴—욕 독점 시세를 좌우하는 금융 왕이요. 워싱톤 정권을 지배하는 무관제 왕입니다.

록펠러란 놈은 인간의 고혈을 짜 먹다 못해 나종에는 뼈다귀까지 갈아 먹는 악착하고 잔인한 놈입니다. 한 사람의 로동자에게서 매년 평균 1만 딸라씩이나 착취해 먹는 이 불한당 놈이 광산 하나를 50년씩이나 손질 한 번 안하고 파 먹기 때문에 60 초 동안에 평균 한 사람의 로동자가 죽거나 병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만행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원래 미국에는 흑인이 없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동물 사냥하듯 강제로 몰아다 놓고 소나 말처럼 부려 먹다가 제 마음 대로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록펠러란 놈은 이걸 《식민정책》이라고 하고 리 승만이와 허 정이란 놈은 이걸 《이민 정책》이란 말로 바꿔 놓고 있는데 그 본질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여간 미국놈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천대를 하고 멸시를 하느냐하면 《제그리게이숀》이라는 격리 제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그리게이숀》이라는 것은 유색 인종은 절대로 백색 인종과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해 놓은 건데… 흑인들이 백인과 결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백인들이 출입하는 기차나 뻐스나 식당, 려관, 극장, 영화관, 공원, 운동장, 해수욕장 하다못해 나종에는 변소까지도 못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소변이 암만 급해도 그건 변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이 잘못된 게 아니라 흑인의 배'속에 있는 오즘통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미국 버밍감이라는 데서는 흑인 아이가 백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엘 들어갔다고 해서 여덟 살 밖에 안된 아이를 강간미수 죄로 몰아서 15 년 징역을 보냈는데 그래도 미국놈들이 가슴속이 풀어지질 않았던지 아주 흑인의 씨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 흑인 아이 아버지까지 붙잡아다 놓고 칼로 란자를 해 죽인 일까지 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 상점엘 못들어 가기 때문에 세상 없이 급한 일이 있어도 물건 하날 마음 대로 못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기 짝이 없는 미국놈들은 상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흑인을 보고 《당신 뭘 사겠소?》 《수건 하나 사겠습니다》 《꼭 사겠소?》 《꼭 사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오우— 좋삽내다. 어서 상점으로 들어 오시요》하고 흑인을 상점 안으로 끌고 들어 가서 수건 값을 50 배 100 배를 내라고 하다가 만일 못사겠다고 하면《오우 안 사겠십니까? 당신 하나님 속였삽내다. 지옥 가야 합니다. 저 뒷문으로 나가시오!》 흑인이 뒷문으로 나가면 5 분도 못돼서 괴루성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흑인들에겐 선거권까지도 공공연하게 박탈하고 있는데 만일 선거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구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당신 알아 마쳐 보시요. 백악관 유리창 수효 모두 몇 갭내까?》 별안간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맹랑한 질문을 드러내 놓으니 갑자기 나오는 대답이 《백악관 유리창 수효는 깨여진 유리창 수효를 제외한 나머지 성한 유리창 수효하고 똑 같다》고나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 두 시험에 통과가 되는 날이면 그 흑인의 등뒤에는 복면을 쓴 암살단이 따라 나서게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놈들은 흑인들 가운데서 의식 분자를 제일 무서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뜨내기 암살단만 있는게 아니라 일정한 주소까지 있는 《암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암살 회사》에는 《K K, K》 (쿠클룩스, 클란)이라는 직업적인 살인 청부업자들이 일상적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깜쪽 같이 없애 버리는데 50 딸라로부터 5000 딸라까지라는 공정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회사》에다가 밑천을 대주고 리자를 따먹고 있는 놈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인간을 중오하지 않는 자는 돈'벌이를 못합내다. 닥치는 대로 죽이시요. 그래야 생깁내다. 그러나 더 큰 돈'벌이 오직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 이것은 꿀보다도 더 단물이 쏟아지는 나의 젖꼭집내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의 철학입니다. 악착하고 잔인하고 뻔뻔스러울 뿐 아니라 극악 무도한 20 세기의 살인마 흡혈귀요, 식인종으로 나선놈이 바로 미국 자본가 록펠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의 돈'벌이 력사는 미국의 전쟁의 력사요, 미국의 전쟁의 력사가 바로 록펠러의 돈'벌이 력삽니다.

무기 팔아 먹는 데 이골이 난 이 전쟁 상인의 주판 알맹이는 사람을 죽이는데 매 1인당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의 리윤이 나오느냐를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제 1 차 세계 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는데 주판을 놔 보니까 매 1 인당 45 딸라씩이 남았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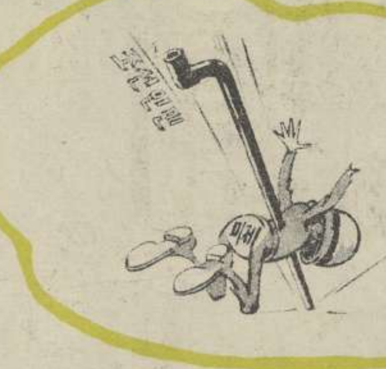
그 통에 입맛을 붙인 이 록펠러란 놈은 히틀러와 비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또다시 제 2 차 세계 대전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오스뻰짐》에다가 가스 살인 장치를 해놓고 학살 당한 사람들의 금이'발까지 뽑아 갔습니다. 해골 재터리도 녀자의 머리털로 만든 스레빠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는 2천 7백만 명이 희생됐는데 록펠러는 매 1 인당 70 딸라의 돈'벌이가 됐다고 하면서 축배를 올린 후에… 또다시 조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것이 녀자거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여라!》

이것이 조선 전쟁 때 구혼데 록펠러는 아이젠하워를 통하고, 아이젠하워는 덜레스를 통하고, 덜레스는 리 승만이를 통해서 무고한 인민들을 신천에서, 안악에서, 거창에서, 장흥에서…닥치는 대로 땅 속에다 몰아 넣고 흙을 덮으며, 아이 밴 녀자의 배를 갈라 죽이며,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톱으로 허리를 잘라 휘발유까지 끼얹고 불에다 태워 죽였습니다.

백여 년 동안을 두고 인류의 머리 우에다 처참 망극한 재앙을 퍼붓고 있는 미국놈들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시방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이 들구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광명한 앞날을 위해서 조국 산천의 아름다운 꽃들이 다시는 재'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것을 가슴에 안은 어머니들의 얼굴에 다시는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국주의 야만을 겨누고, 분노의 화산은 시방 시시 각각으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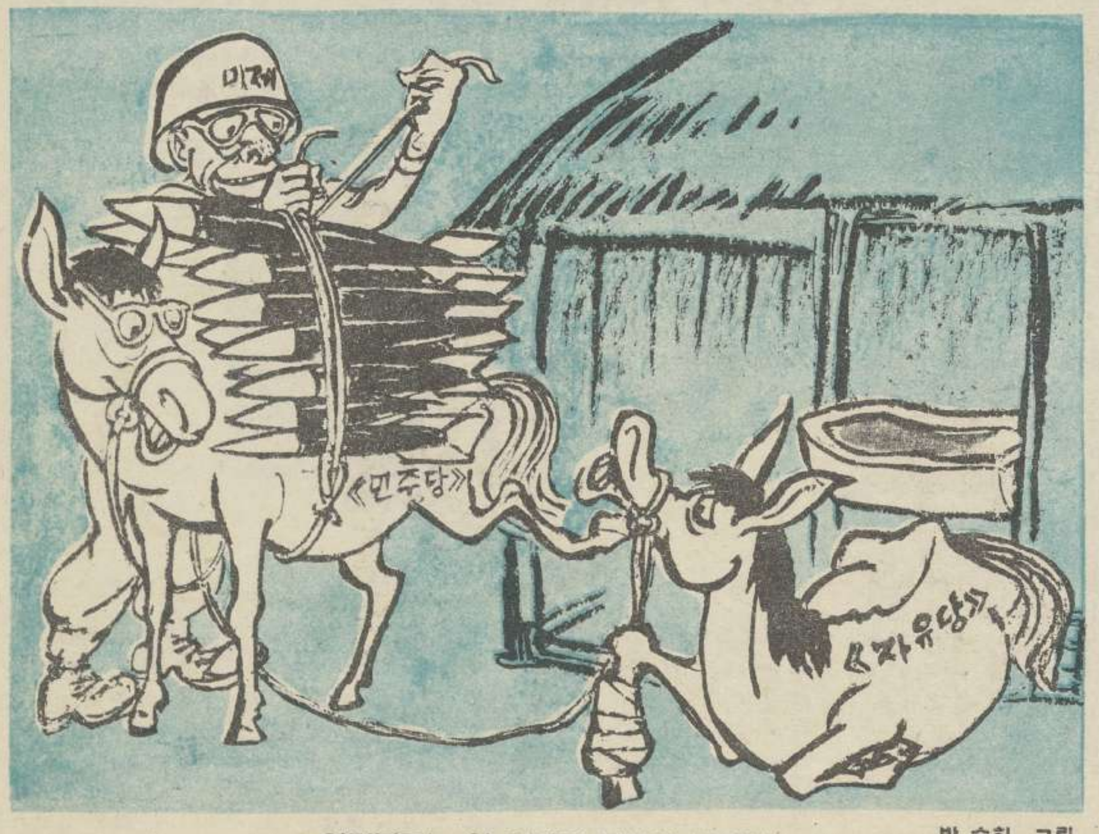
안 창수 삽화

《비준》 담당자

백 인균 그림

남조선의 괴뢰 《국회》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충실히 실현하는 부속물로 되고 있다.

미제의 마구'간 앞에서



—이제부터는 이 말에다 실어야 하겠다

박 승히 그림

황소 보고 인사

신 홍순

어제까지 호통과 욕설로 인민을 대하던 자가 일단 〈국회〉 의원 선거의 립후보를 하기만 하면 금시 머리를 숙이며 상냥해지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자유당〉이 그랬고 〈민주당〉 역시 그렇고.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민주당 최 모의 부인이 우물'가에 나오자 동리 녀인들이 인사를 한다.

《참 댁의 전 량반이 이번에 립후본가 뭔가 하시더니 갑자기 애기 어머니 얼굴까지도 주름살이 펴지는 것 같군?》

《인제 두고 봐야지요 뭐, 당선이나 되겠는지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요즘은 댁에서 가정 싸움을 안허시니 말이외다》

《네에 참 아닌게 아니라 요즘은 정말 살 것 같애요. 영순 어머니도 이웃에서 빤히 보시지만 립후보하기 전엔 날의 날마다 죽일년 살릴년허구 때리더니만 요즘은 어찌두나 상냥해 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법 〈이랬소?〉 〈저랬소〉하는 걸요》

《그것 봐, 아 전에야 그 량반이 어디 우리네 같은 걸 사람으로 보기나 했나요? 그러던게 어제는 나를 보더니 〈영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선거구에 립후보를 했사온데 제 기호는 3 번이 올시다〉 허구 깍듯이 인사를 하잖겠어요? 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다니》

최가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돌아가자 그 남편이 지나 가다가 덮어 놓고 날아갈 듯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선거구에 립후보를 한 사람인데 제 기호는 3 번이 올시다. 3 번이예요》

《여보 나를 보구 다 인사를 허우? 호호호》

그의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깔깔 웃어댄다.

《어? 음 난 또 누구라구? 날이 저물어서…》 자기도 계면쩍은 듯이 머리를 긁는다.

《사람이란 인사성이 밝아야 하는 법이야, 당신도 누구를 보던지 깍듯이 인사를 허우》

《당신도 요즘이나 그렇지 인제 선거만 끝나 보지? 또 때리질 않나?》

《글쎄 나 하라는대로 하기나 해》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우차가 온다. 최는 얼른 우차 앞에서 넙죽히 절을 하고나서 판에 박은 인사 말을 한다.

《저는 이 선거구 립후보잔데 제 기호는 3 번이 올시다. 3 번이예요》

여보 사람도 없는데 소를 보고 다 인사를 허우?》

《뭐 사람이 없어? 음 임잔 어디 가고 소만 오는구나!》

황소가 〈음매〉하고 영각을 하자 최가는 쑥스러운 듯이

《음 소두 인사를 하니까 좋은 모양이지? 허허허》하며 혼자 웃어댄다.

△

아니나 다를가 그가 락선이 되던 그 이튿날부터는 아주 딴 사람으로 표변되였다. 납실거리던 몸뚱이는 도루 말뚝이처럼 뻿뻿해지고 눈알은 왕방울이요, 목소리는 게사니처럼 껙껙,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는 다 죽어 가는 안해의 비명이 들려 나왔다.

군국주의자들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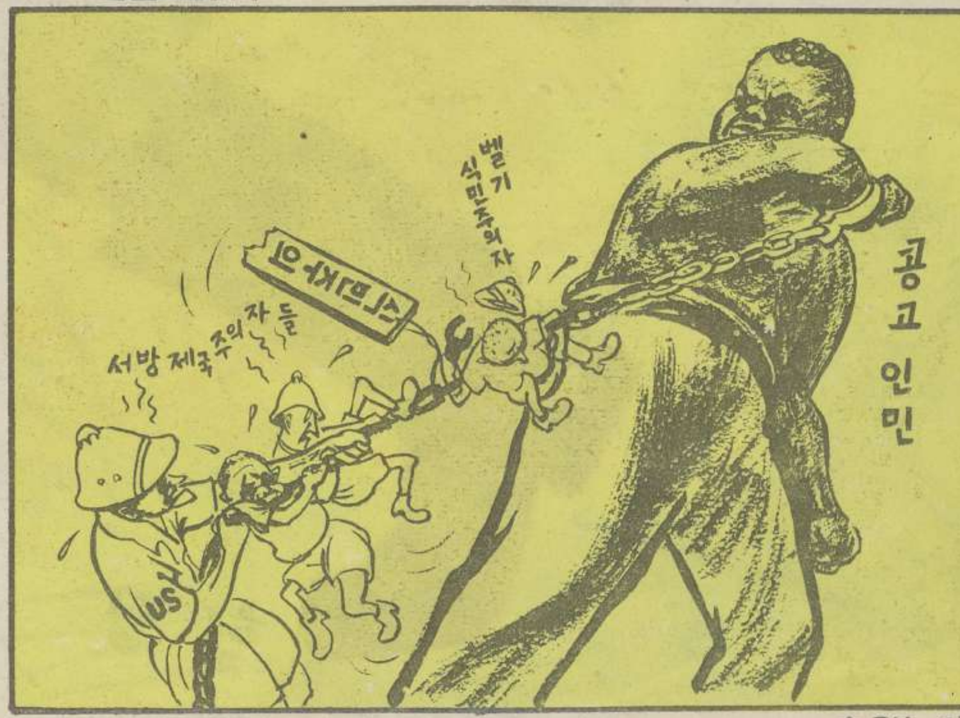
일본 인민들에 의하여 수상 직에서 축출된 기시와 교체하여 지난 7월 18일 수상으로 임명된 이께다는 기시와 마찬 가지로 극단한 군국주의자로서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해 나서고 있다.

송 용남 그림

단결된 힘 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콩고에서 손을 떼라!

자기들의 리권과 지배를 보존하기에 혈안이 된 미제를 비롯한 서방 식민주의자들은 콩고에 대한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의 공공연한 공모자로 나서고 있다



송 용남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813
발행 1960.8.20
(값 40전)

미제의 《돌격대》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재무장 정책에 의하여 머리를 추겨든 서독 복쑤주의 도당은 오늘날 날로 더욱 거만스럽게 날뛰며 구라파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